

교회주소: 전남 순천시 풍덕새길 58 성문교회 우:57995

성문교회밴드(링크: <http://band.us/@smchurch>), (밴드: [순천성문교회](#))

경리010.6677.4023/미션010.2433.2955/교회061.723.6192/후원503805.01.004650(우체국.성문교회)

[순천 성문 교회 59번째 이야기]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 에 행복이랴오
눈물날 일 많지만 기도할수 있는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을 위해 참는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것
이것이 나의 삶에 행복 이랴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랴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랴오 (행복 찬양중..)



찬양의 가사로 나의 삶을 이야기 합니다.

세상은 알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매일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슬자매와 주오형제]

복지관에 다니는 이슬자매는 늘 말이 없었습니다.

묻는 말에 대답도 잘 하지 않고, 찬양할때 입술을 떼지도 않았습니다, 자매의 대답이나 말을 듣는건 매우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그만큼 사람을 두려워하고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6개월 정도 됐을때 '네, 아니요' 두마디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건 그 자매위해 기도하고 계속 이야기 해주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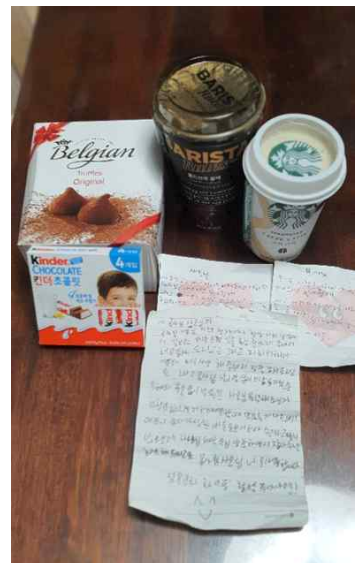
교회 출석후 1년이 지난 지금 자매는 작은 목소리지만 청년부 나눔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찬양할때 입술을 움직이고 잘 웃기도 합니다.

또한 긴 여정 끝에 드디어 학습을 받으며 그안에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수요예배때는 일찍와서 식사준비를 돕습니다, 어느날은 교회와 목사님 사모님 위해 노래를 만들었다며 들려줍니다,

"하나님 좋아~ 목사님 좋아~사모님 좋아~ 성문교회 좋아~ 다 좋아~" 같은 음으로 부르는 그 노래는 저에게 화려한 4중주 노래처럼 들렸고 너무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슬자매가 복지관 형제를 전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주오 형제는 성격이 밝고 긍정적입니다, 주일엔 스스로 식사전 행주로 식탁을 닦고 식사후엔 식탁정리, 쓰레기 정리를 도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나선 활짝 웃으며 '사모님 다했어요~ 진짜 깨끗하죠~' 라고 합니다, 순수한 형제의 미소와 섬김이 참으로 귀합니다, 어느 수요일에 이슬자매와 주오형제는 목사님 사모님 피곤하실 때 단 거 먹으면 기분도 좋아지고 피곤함도 풀릴 것 같아서 준비 했다고 하며 수줍게 선물과 편지를 건넸습니다, 오랜만에 받아보는 손편지와 그 내용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슬자매, 주오형제와 성경공부를 할땐 너무도 순수한 대답들에 웃음이 빵빵 터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하고 깨끗한 그들의 믿음을 보며 저 또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슬자매와 주오형제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들이]

오랜만에 마지막주 예배후 바닷가 공원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그 날 함께 간 교우들은 모두 개인 차가 없어서 구경다니기 힘든데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탁트인 곳에 나가니 모두들 즐거워 했습니다,
한 자매는 큰소리로

'오메~ 좋은거~ 이것들이 다 하나님 선물이며 잉~'

하면서 깔깔깔 웃습니다, 그 웃음에 옆 에 앉은 다른 사람들까지 모
두들 함께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눈으
로 보고, 간식으로 싸간 떡과 음료 맛있게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
습니다,



[손용옥성도 가정이야기]

농사를 지으시는 김영희 집사님 댁에 심방을 가면 남편 성도님이 텃밭에 있
는 것들을 채겨주고 싶어서 두분 손이 분주합니다, 농사를 지어도 전동차 타
고가서 팔수가 없기에 저희가 팔아드린다 생각하고 소정의 금액을 드리고 읍
니다, 그러면 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주일에 상추,고추,가지,쪽파 가득 담아
전동차에 싣고 오십니다,

글을 모르니 교회 만나갈라요 했던 손용옥 성도님은 예배를 통해 힘들었던
일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만지시고
계심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기에 그분들의 힘들었던 삶이 변화될줄 믿습니다,



[전도 이야기 - 공사현장]

코로나로 인해 마트앞 거점전도, 거리 전도도 할 수 없어서 관계전도 심방을 중점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주변에 도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세침 시간쯤 시원한 토마토 주스를 만들어서 안전봉 들고 있
는 아주머니들께 다가가 수고한 이야기를 들어주며 복음을 전하고, 어떤 날은 시원한 냉커피를 만들어서 아저
씨들께 한잔씩 드리면서 기계소리보다 큰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저 '에~에~ 알겠소 알겠소~ 하시지만 귀로 들었기에 그 단어 하나하나 흘리지 않고 가슴에 담아
씩이 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반응하여 하나님이 궁금해져서 그들이 사는 각처에서 교회를 찾아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길 기도합니다,

[교회공사 - 창고공사]

교회 외부에 작은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을 업체에 맡기려 하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는데 시부모님은 창고의 필요를 들으시고 한걸음
에 달려와 몇일 수고하시며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날 교회 건축에
어려움이 있을때에도 시부모님은 오셔서 모든 마무리 공사를 해주셨
습니다, 늘 어려움이 있을때마다 열일 제치고 먼곳에서 오시여 수고해
주시고 누구보다 성문교회와 저희가정위해 기도해 주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사랑이 저희 사역에 큰 모터가 되고 있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하겸이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친구 같은 수정이와 나라는 성경공부 할 때도 밖에서 만남을 가질 때도 깊이있는 이야기를 잘 나누고 잘 웃습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괜찮아요~" 입니다, 어떤 상황이든 늘 긍정의 말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수정이와 나라 맘에 온전히 심겨져 청소년 때에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막내가 벌써 1학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운동장을 늦게 밟았지만 잘 적응하고 씩씩하게 잘 다니고 있답니다,^^



많은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우리는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 풀어놓을순 없지만 모든 걸음걸음과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간섭하심과 동행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매일 소풍 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 지치고 힘들겠지만 각자 골방에서 이 나라 이 백성위해 더욱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1. 교회학교 아이들(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과 몇몇 청년들이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않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결혼과 직장일 때문에 주일성수를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아이들과 청년들을 주중에 만나고 있는데, 마음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교회학교 고등부 친구들과 청년들, 그리고 군입대 하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고등부 친구들은 학업, 청년들은 진로와 취업준비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교회 성도 중에 4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되어 불안해 하십니다,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불안함 마음 가운데 나쁜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할수 있도록 기도바랍니다,
4. 최근에 나온 손용옥 성도님을 위해 기도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이 잘 세워지고, 아픈 다리(한쪽 다리 불편)와 심신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저희 부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코로나 여파로 인해 온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정부가 내려 준 방침에 준수하여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교인 수가 적어서 가능) 그러나 절반 정도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 바랍니다,